

“가족” 개념 확장 첫 걸음” vs “가족제도 근간 흔들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지역 분위기

법적 권리 첫 인정 환영...공단, 가이드라인 개정할지는 의문 “한국 정서와 안맞고 동성에 합법화 단초 제공” 우려 목소리도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성소수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종교계 등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동성에 커플들은 “제한적이나마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가 최초로 인정됐다”며 판결을 반겼다.

광주에서 동성과 커플관계를 5년째 이어온 30대 A씨에게 이번 판결은 남다르다. 지난해 A씨의 동

성연인이 맹장 수술을 받았을 당시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해 받을 동등 구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결국 연인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회상했다.

A씨 커플처럼 그동안 법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 부부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성소수자가 많아 보호자의

동이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더 반가운 판결이 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단순히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전남지역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지기 활짝’의 서유진 활동가는 “우리 사회엔 동성 부부는 물론이고 비혼 출산, 동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이냐는 문제와도 밀접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법이 ‘동성혼’을 인정할 것은 아니어서 동성 부부가 당장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성 연인과 광주에서 2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

30대 B씨는 “피부양 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법적 부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피부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성 연인보다 동성 연인에게 더 많은 증빙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직장에 ‘아웃팅’ (동의 없이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는 행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위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행정기관이 행정 서비스에서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공단이 판결 이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할지 의문이다. 되레 해당 지침을 공백 상태로 두거나 오히려 수급권을 축소하지 않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동성 부부에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데 대해 한국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도 만만치 않다.

박병주 광주열린교회 목사는 “추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출산으로 미래가 암울한 대한민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원심의 원고소환 판결을 확정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빗물 모아 다시 써요 22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운초등학교에 설치된 ‘빗물 저금통’에서 유치원생들이 물을 받아 텃밭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지붕,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조경, 청소 등에 이용하는 빗물 수집 장치인 ‘빗물 저금통’은 지난 5월 물 재활용 교육을 위해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서구청에 건의해 설치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이번주도 ‘째뵈 더위’ 35℃

일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大寒)인 22일 광주·전남에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째뵈 더위’가 이어졌다.

소나기가 내리는 등 비가 오락가락 하겠지만, 이번 주 내내 폭염이 맹위를 떨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23일 낮 최고기온은 30~34도에 분포하고 24일은 30~34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22일 예보했다.

장마전선이 북상해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태양열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째뵈 더위’가 계속 된다는 것이다.

25일까지 광주·전남 전역의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 밤잠을 설치는 열대야 현상도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23일 전남 동부 지역에 5~20mm, 24일 광주·전남에 5~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태양열로 인해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지겠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담양·순천·함평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곡성·구례·화순에는 전날 내려진 폭염경보가, 전남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는 지난 20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씨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제3호 태풍 ‘게미’의 이동경로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가 달라지면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한빛원전 수명연장 무안 공청회도 ‘무산’

장성 등 6곳 모두 열리지 못할 듯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강행한 무안 주민공청회도 ‘무산’됐다.

한수원은 22일 오후 무안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앞에서 “무안군이 공청회 대관을 불허함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함평군과 마한가지로 무안군이 공청회 장소 대관을 불허해 공청회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던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함평, 장성, 무안, 부안, 고창)중 5곳에서 공청회가 무산됐다.

마지막 남은 장성군도 23일로 예정된 주민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공청회 장소 대관을 취소해 전체 6개 지역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장성군은 “두 차례 한수원에 주민공청회를 연기 하지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합평 주민이 광주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민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 함평군민 1513명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재차 광주지법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방산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낸 같은 신청은 기각됐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주교육청, 방학 중 돌봄교실 무료 점심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52개(중·초·고교 포함)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위탁도시락이 무상 제공돼 개인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서류심사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152개 초·중·고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이 가능한 납품업체를 (Pool)을 구성, 학교에 제공했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 배송이 어려운 11개 농

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생선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업종자격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무상 중식지원 사업’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고 학생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각 학교에서 개인도시락, 위탁도시락, 자체 조리 등 학교에 따라 제공 방법을 결정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